

군산시, 호우 피해 방지 총력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비상근무·대책회의 진행 등... 시민들의 안전 위해 전직원 최선

군산시 전역에 9일 오후 10시 2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군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 비상 1단계 근무를 실시했으며 9시 50분에 1차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호우경보가 발효되자 비상 2단계 근무로 격상시키는 한편 오후 10시 40분에 2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10일 오전 3시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 직원들에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7월 10일 오전 5시 기준 군산시 주요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나포면 393mm, 해신동 322mm, 조촌동 315mm, 임피면 315mm, 어청도 313mm, 흥남동 298mm, 대야면 283mm, 소룡동 280mm, 나운동 273mm, 말도 156.5mm를 기록했다.

또한 호우경보 이후 강풍주의보(10일 0시 발효), 풍랑주의보(10일 0시 30분 발효), 산사태경보(10일 오전 1시 45분 발령)가 발효됐으나 10일 오전 5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경보, 강풍주의보는 해제된 상태다.

10일 오전 5시 기준 군산시 피해현황은 산사태 2건, 침수 94건, 수목전도 7건, 역류 4건 등 107건이 보고됐으며, 이에 군산시는 백토고개, 대야 지하차도를 포함한 주요 침수지역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10일 오전 3시 강임준 군산시장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 직원들

에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간 군산시는 장마철에 앞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직접 재난대비 시설을 비롯해 재해복구 사업장, 건설사업 현장 등 재해취약 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강임준 시장은 주요 재난대비 시설인 경포천 배수펌프장과 경포배수갑문의 작동상태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관련 현황청취 및 점검을 실시하면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의 지시와 함께 3시에

곧바로 비상3단계 근무가 실시됐고, 전직원은 음면동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직원들은 상습침수우려지역 순찰, 빗물받이 점검 및 통수요청 문자발송, 안전안내문자 발송, 호우대비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

성산, 나포 등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 모를 산사태 대비해 대피 안내를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센 비가 내릴 때는 의술이나 차량운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고독사 예방 사업 실시

'시네이버 케어콜' 확대 시행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 세대가 급증하면서 군산시가 고독사 예방 및 안부를 위해 시범운영되었던 AI 네이버 케어콜(안부전화) 사업을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AI 네이버 케어콜은 주 1회 AI가 자동 전화로 전화를 걸어 건강·식사·수면·운동·외출 등 안부 확인을 묻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지방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나운3동에 시범 운영했고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올해 27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I 네이버 케어콜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가 대상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을 유도해준다.

여기에 일상적인 대화까지 가능해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들이 겪는 고독감을 해소해준다는 평가다.

특히,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적 위험 상황까지 분석해 읍면동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게 해,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구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 군산시 방문

실리적인 한중 우호교류 협력방안 모색

구정치(顧景奇) 주광주 중국총영사가 10일 한중 우호교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군산시를 방문했다.

군산시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2017년 이래로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구정치(顧景奇) 총영사가 2024년 2월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첫 예방(禮訪)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진행된 총영사와의 간담회에서는 현재 군산-스나오(웨이하이) 페리 운영과 중국기업의 군산 입주가 주된 화제로 다뤄졌다.

실제로 최근 군산을 통해 중국으로

오가는 인원이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측에서는 이에 따른 한중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 이후 우리 시 대표 관광자인 '시간여행마을'을 방문하여 군산의 관광자원을 소개하였으며 '비어포트'에서 군산 수제맥주의 제조과정 및 군산 맥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구정치 총영사의 군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군산시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간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호우 상황 행정력 집중... 인명피해 방지에 '사활'

기록적 폭우에 8개 읍면동 주민 70여명 안전한 곳으로 대피·구호물품 보급 등 적극 대응

익산시가 폭우 상황 대응과 추가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현을 익산시장은 현장 구축구역을 누비며 인명피해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나 오전 6시경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오전 10시 기준 현재는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익산시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망성면 419mm △성당면 411mm △함라면 403mm △용안면 401mm △용포면 399mm △용동면 394mm △함열읍 388mm △여산면 346mm △낭산면 340mm 등 평균 386.8mm로 집계됐다.

함라면의 경우 이날 오전 0~6시 사이에만 257mm의 비가 쏟아져 이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기록적 폭우 상황에 정현을



익산시장은 새벽부터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정 시장은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던 이날 오전 2시30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 3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 비상 근무를 명령했다.

이어 곧바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해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함라면 연화마을을 우선적으로 찾아 주민 20여 명을 인근 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하도록 했다.

또 용포면 침수피해 농장과 저수지

범람지역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 정 시장은 오전 7시 상황판단회의를 재차 열고 각 부서별로 맡은 역할을 지체 없이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예정된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배수펌프장과 하천, 지방 붕괴 지역, 농작물 침수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등 호우 피해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지하차도 3개소와 하천변 산책로 10개소, 등산로 5개소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도 8개 읍면동 전 직원 비상 근무를 명령했다.

아울러 47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 성료

익산시가 전국 육상대회로는 처음으로 '백제왕도 익산'을 대회명으로 선정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 메카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는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선수단 1,400여 명이 참여해 큰 부상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익산시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 격의 서동·선화상을 신설해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인 김주호 선수(국군체육부대)와 권서린 선수(철산중학교)에게 상을 수여했다.

익산시청 육상부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8일 대회 첫날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황미르 선수가 김태희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8일 세단뛰기 종목에서 유규민 선수가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원반던지기 종목에서 신유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내달 18일까지 40일간

군산시가 10일 선유도 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개장식을 개최하면서 40일간 해수욕장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군산시장, 시의회 의장, 전북특자도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장들과 지역주민, 해수욕장 방문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개장 퍼포먼스와 함께 구조활동 시연,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본격적으로 선유도 해수욕장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군산시는 개장기간 중에 비치파라솔과 구명조끼 대여 및 실내 샤워장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8월 말까지 수상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